

한 해가 마무리될 즈음이면 내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전망하게 된다. 특히나 올해처럼 변동이 극심한 때는 우리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더욱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 기업, 국가 모두 그 스펙트럼의 정도만 다를 뿐 미래 상황을 엿보고자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미래전망이다. 미래전망은 하나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미래의 모습들에 대한 조망이다. 미래전망은 현안 중심이라기보다는 사회시스템의 작동방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미래트렌드를 포착하는 것이며, 그 시간적 지평은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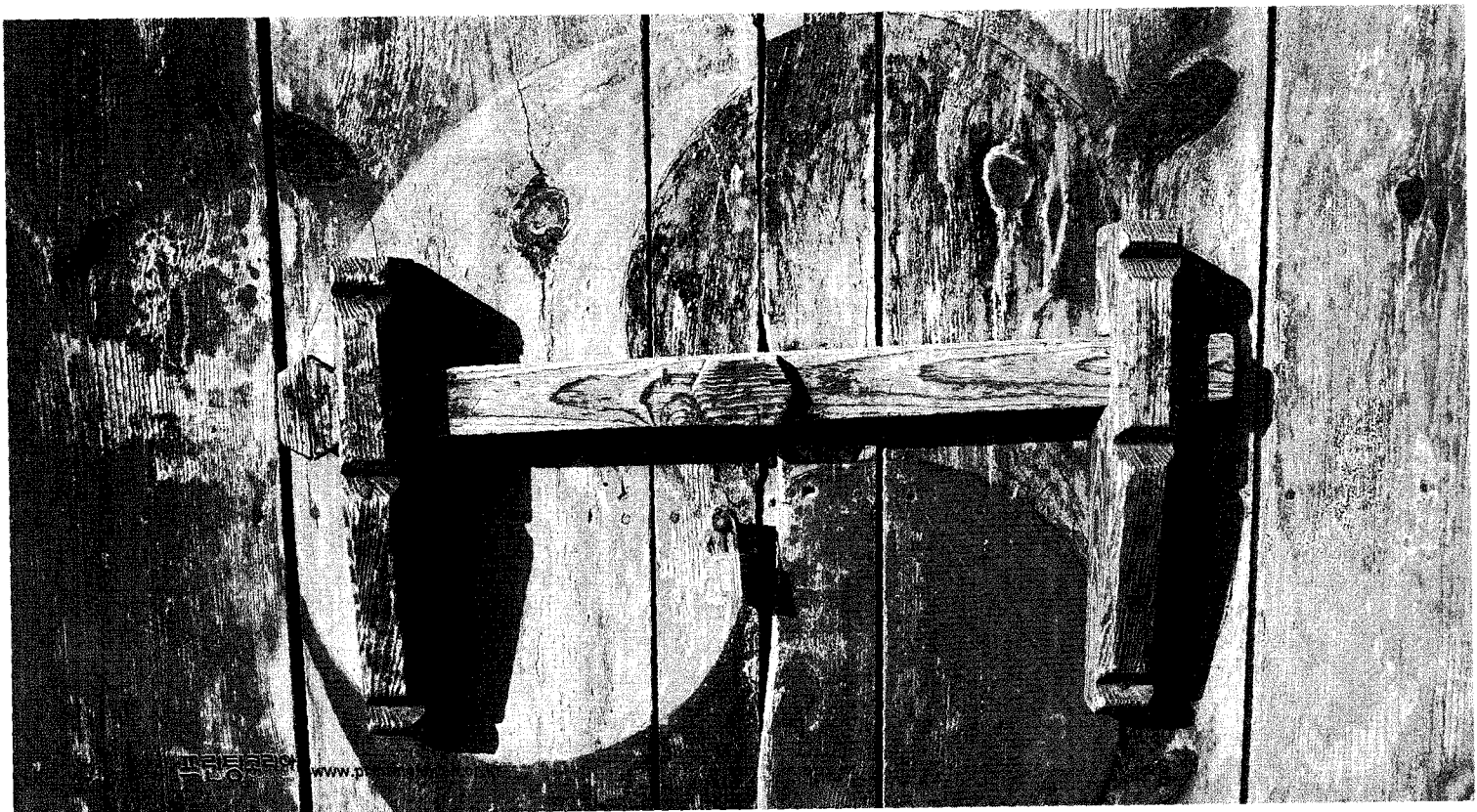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미래의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지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즉 미래전망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기보다 현재의 사회시스템의 작동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함으로써 미래에 가능한 '개연적' 사회모습들을 그려보는 것이다.

### 미래사회 변화상, 미래 삶을 위한 과제

EU에서는 6차 Framework Program(FP6)에서부터 유럽 내외부의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여 미래예측(Foresight Platform)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유럽 각국 및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브라질 등 다수의 국가와 기업, NGO 등에서 유사한 작업이 수행되고 있다. 지역과 국가에 따라 미래에 대한 관심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북미 지역에서는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 및 에너지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아시아 국가

# 미래 한국의 과제와 삶의 대안

기고\_ 김원제 유플러스연구소장 · 언론학박사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미래의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지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들은 제조업과 에너지 문제와 함께 농업·식량, 환경 및 수송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은 농업·식량 문제와 건강관련 문제 및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높다. 호주와 유럽지역은 모두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대한 미래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호주는 그 외에도 수송 이슈를 중시하고 있으며 유럽은 사회적 문제와 농업·식량 및 정보통신기술 문제에 관심이 높다. 유럽 지역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경기술,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및 건강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7년 저출산·고령화와 경제활성화 양립,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장기적인 사회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설정하고 있다.

우선 미래 사회환경 변화모습을 아홉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1) 인구구성의 변화(고령화), 2) 가속되는 핵가족화, 3) 노동인구 감소, 4) 세대구성의 변화(고령자세대 증가), 5)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 6) 젊은 층의 체력 저하, 7) 휴면에 려가 사고의 주요 원인, 8) 고령 운전자 증가, 9) 지구 온난화.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상은 1) 심신이 모두 건강한 생활, 2) 즐겁고 편안한 생활, 3)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수단, 4) 안전하고 일하는 보람이 있는 환경 등으로 요약된다.

## 한국의 미래과제

우리 역시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008 국가과학기술기본 계획>에 따르면, 우리가 당면한 미래과제는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에 따른 대응이 요구된다.

지역 간 경제통합 및 세계 경제화가 진행 중이다. 1990년대 이후 유럽, 미국 등 세계 경제의 중심부에서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지역 간 경제통합이 경쟁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 간 경제통합으로 국가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는 큰 수혜를 얻는 반면, 경쟁력 열위 분야는 피해를 보게 되어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개방화·세계화 시대에 맞춰 국가간 우수 두뇌 쟁탈전이 심화될 전망이다. 동시에 경제 다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일본, 유럽 중심이던 세계 경제가 중국,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다극화될 전망이다. IT 기술혁명에 따른 과학 기술 발전의 가속화와 시장경제의 확산은 세계 경제화를 촉진하고 경제 다극화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지역경제통합 등 세계 경제화에 따라 전지구적 경쟁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고급 인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특히 BRICs 국가들에 대한 투자 확대,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협력 등 경제 다극화에 대한 대비체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전 지구적 에너지·자원·환경 문제 심화에 따른 대응이 요구된다.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 인도 등의 급성장으로 에너지·자원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가용한 에너지·자원은 한정되어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자

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자원 국유화 등 자원 민족주의 확산으로 에너지 보유와 확보의 상관관계에 따라 국제적 연대관계가 변화할 전망이다. 친환경 에너지정책 의무화로 강화된 환경기준에 따라 에너지산업이 재편되고,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이 21세기 핵심기술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이슈도 중요하다. 오존층 파괴, 수질·대기·토양 등 환경오염은 장기적으로 생태계 변화와 기상재해 등을 통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크게 위협하는 수준이다. 지구온난화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 빙산 감소,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 현상 등이 발생하며 한국도 아열대 기후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이 0.74℃상승했다고 한다. 온도상승의 주요인은 화석연료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에서 찾아진다. 기후변화와 물 수요 증가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권과 물도 시장에서 거래되어 치열한 확보 경쟁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에너지·자원 공급원의 다변화, 친환경 에너지·자원분야 기술 육성을 통한 장기적인 에너지·자원 확보가 중요한 국가과제가 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연구

및 국제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우리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대안 필요

셋째, 신기술 융합 등 과학기술 진보의 가속화에 따른 대응이 요구된다.

IT, BT, NT 등 학제 간 기술융합 현상에 따라 신산업 창출 및 행태 변화 등 경제·사회에 혁명적 변화가 발생될 전망이다. 기술수명의 단축과 투자 대형화에 따라 연구개발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관련 연구개발서비스업이 성장할 전망이다. 규모의 경제가 세계시장 단위로 확대되어 국가 간, 기업 간 기술표준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식재산권을 통한 기술패권주의가 부각될 전망이다.

웹2.0를 통해 전세계 네티즌의 자발적인 대규모 협업체제가 확산되어 새로운 개방형·참여형 생산·혁신방식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메타버스 온라인 게임인 'Second Life'는 사용자들이 설계하고 만든 가상세계로, 실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고객주도 혁신의 예이다. 국제여행 증가, 기후변화, 숲 파괴, 인구밀집지역의 열악한 위생상태 등이 복합되어 발생하는 신종질병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이에 대비한 혁신적 의학기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R&D서비스 아웃소싱, 국가 간·기업 간 협력 증대를 통한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기술혁신이 요구된다. 또한 새로운 건강 위해요인의 출현으로 혁신적 의학기술 수요에 대응한 범지구적 협력과 기술개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넷째,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심화에 따른 대응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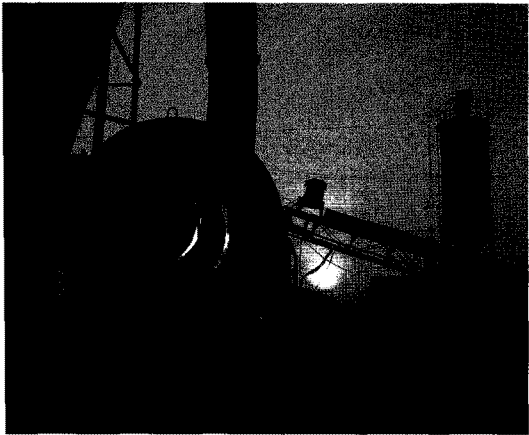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현상과 가치관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둔화, 사회부담 가중, 삶의 질 하락 등 광범위한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가정·직장·사회 전반에 성별 간 역할구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사회적 양극화는 세계적 현상이나,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여러 측면이 동시에 압축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경제적 구조에 의한 양극화는 소득 양극화로 귀결되고 교육기회 및 정보획득의 격차를 유발한다. 양극화로 인한 사회계층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출산을 제고, 노년층 삶의 질 향상, 생산가능인력 감소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여성의 사회·경제·정치적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 양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 해소를 위해 사회구성원간 연계 강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안보위협 증가에 따른 대응이 요구된다.

중국·인도의 정치적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과 인도는 인구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국제질서 변화를 주도할 전망이다.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불확실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견된다. 중국의 부상, 미·중의 패권 경쟁, 중·일의 아시아 외교 경쟁, 일본의 재무장, 지역 국가 간의 영토와 역사분쟁 등 동북아 긴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법체계적 핵 확산 우려가 증대할 것이다. 법체계적인 핵 확산 방지체제에 비추어 북한의 핵실험 등 불확실성은 한국의 세계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제범죄 등 새로운 안보이슈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안보에서 테러, 질병, 환경, 재난, 국제범죄 등 인간중심의 안보 개념으로 전환되고, 안보 위협의 원천도 국가뿐 아니라 테러리스트, 특정집단, 국제 NGO 등으로 다원화될 전망이다.

이에 미·중, 중·일 패권경쟁, 북한의 핵위협 등 안보 위협요소 해소와 동아시아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다음 세대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 세대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는 것이다. 지속성, 형평성, 효율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현세대의 자원과 환경의 개발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후세대의 후생을 위협하지 않도록 진행되는 개발을 의미한다.

지역협력을 위한 외교 인프라 확충·강화가 필요하다. 국제범죄, 테러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가 요구된다.

### 한국인의 '참살이', 행복조건은 지속가능발전 모델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지속가능발전에서 찾을 수 있겠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다음 세대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 세대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지속성, 형평성, 효율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현세대의 자원과 환경의 개발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후세대의 후생을 위협하지 않도록 진행되는 개발을 의미한다. 지속가능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원과 환경의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는 것에 있으며, 미래 기업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지침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세대 간 형평성, 삶의 질 향상, 사회적 통합 그리고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등이 근간을 이룬다. 여기서 '세대 간 형평성'이란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는 것이다. 즉 현 세대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다음 세대도 현 세대와 마찬가지로 아니면 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천연자원과 쾌적한 환경, 의료보험 등을 포함한 각종 사회 보장제도의 기반 구축,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인적 자원 확보 그리고 안정적 재정구조 확충 등을 의미한다. '삶의 질 향상'은 현 세대의 안정적 삶을 보다 더 증진시키는 물론 이러한 삶을 더욱 쾌적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확대시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환경을 포함하여 개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만족한 직업, 쾌적한 주거환경, 안정적 수입, 사회적 인정,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유지가 필수적이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의 확보도 중요하다.

'사회적 통합' 또한 지속가능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우리는 빛의 속도로 변하는 사회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발전으로 야기된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위기 상황에 놓이게 하기도 한다. 즉,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하여 사회 안정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 사회적 변동이 심할수록 공동체적 의식과 가치관을 사회구성원이 갖도록 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부의 균등분배와 정치참여의 기회를 더욱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연대의식과 공동의 가치관을 창출할 수 있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 책임은 한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 환경보호, 빈곤퇴치, 테러종식 등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현시켜 나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구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본이 된다. 특히 자원수출에 의지하고 있는 빈국들의 경우 선진국과 다른 형태의 환경파괴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구촌 차원에서의 지속가능 발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들 빈국들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좋은 것을 찾아 잘 소비하려는 개념의 '참살이(well-being)' 가치관이 대두되고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추세이다.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와 환경 규제가 점차 강해지는 추세를 반영해 로하스(LOHAS :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로하스는 개인의 건강을 중시하는 개인적인 웰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환경보호 차원까지 고려하는 '사회적 웰빙'을 의미한다.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GNH(Gross National Happiness; 총국가행복지수)'가 그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로 활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조사 발표되는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하위권으로 평가된다. 2006년 영국 신경경제학재단(NEF)이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행복지수에서,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02위 수준이다. 덴마크가 행복지수 1위국이며, 그 다음으로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바하마, 핀란드, 스웨덴 등의 순서이다. 지속가능발전에 기반한 로하스 삶의 확대, 우리 국민의 미래 '참살이'를 위한 조건이라 하겠다. ☺